

#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24-27을 중심으로

이재현(한동대학교 교목)

## I. 들어가면서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가 최초로 인정한 이래 열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 결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그 파장이 클 것이다. 특별히 여러모로 미국의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한국은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한 가지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의 이미지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인식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동성애를 합헌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라는 것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 온 점이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모습은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그렇기에 동성애와 관련한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 조만간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현재 한국 기독교권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결정적 도화선 중의 하나는 2015년 6월에 있었던 퀴어 축제였다. 기독교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후로도 동성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 질 것이고, 당연히 한국 기독교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다.

동성애는 같은 성을 가진 자들의 성적 결합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한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렵듯이 동성애를 접근하는 것 역시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의학, 종교 등의 다차원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sup>1)</sup> 특별히 경험과 과학 지식의 증가로 인해 통일된 하나의 관점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그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사회-문화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접근, 특히 기독교적 접근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의견들이 있다. 그 핵심은 성경의 증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sup>2)</sup>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9:4-11과 사사기 19:22-25, 레위기 18:22와 20:13이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언급한다. 앞의 두 경우는 소돔과 기브아 족속의 경우를 이야

1) 러스 테이트(Russ Tate)는 이런 여러 접근을 과학과 동성애, 성경과 동성애, 경험적 지식과 동성애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한다(Tate, 2003: 77-89).

2) 사실 성경의 증거는 그것을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시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에게 성경의 증거를 찾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으로 동성애를 접근하는 작업에 앞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성경을 기독교인들의 구원과 삶의 최고이자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시작할 것이다.

기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고, 레위기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율법 조항이다.<sup>3)</sup> 신약은 로마서 1:24-27과 고린도전서 6:7, 디모데전서 1:10이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sup>4)</sup>

이 모든 증거 중 가장 중요한 본문은 로마서 1:24-27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본문이 신약 성경 속에 있기 때문이다. 구약도 동성애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지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sup>5)</sup>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기에 구약의 경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예, Via, 2003: 4-9). 하지만, 로마서는 신약에 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다. 둘째, 성경 모든 부분 중에서 동성애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학자들은 이 부분의 상황을 남녀 간의 성적 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iller, 1995: 1-11; Fredrickson, 2000: 201 n. 15).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동성애를 다루는 것으로 인정한다. 더 나아가 로마서 1:24-27은 남자들의 경우 뿐 아니라, 고대 문헌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여자들의 동성애도 다루고 있다. 셋째, 성경의 여타 본문보다 더 분명하게 동성애를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로마서 1:24-27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동성애에 대한 핵심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룹이든 그렇지 않은 그룹이든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원리 적용을 자신들의 논증의 핵심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로마서 본문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을까? 그 원리들은 오늘날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는 동성애와 관련한 본 논문의 핵심 질문들이 될 것이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것들과 대화하면서 로마서 1:24-27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로마서 1:24-27의 내용을 여러 다른 본문과 연계시켜 오늘의 상황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 II. 로마서 1:24-27에 대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관점들

성경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 하나는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통해 도출된 원리들을 오늘의 상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두 과정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단계를 염두에 두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본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적용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3) 이 외에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아의 아들 함의 범죄가 언급된 창세기 9:20-27과 소돔의 죄가 언급된 에스겔 16:49-50, 성전 제의와 관련된 동성애를 다루는 여러 본문들(신 23:17-18; 왕상 14:21-24; 15:12-14; 22:46; 왕하 23:7; 참고, 욥 36:13-14) 등이 있다. 한편, 동성애 지지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역시 동성애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orner, 1978: 26-39). 이에 대한 반론은 Gagnon, 2002: 146-154를 보라.

4) 유다서 7과 베드로후서 2:6-10에 언급된 소돔의 상태 역시 동성애에 대한 간접 본문으로 다루어진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마태복음 8:5-13과 누가복음 7:1-10에 나온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도 연관 본문으로 제시한다.

5) 본 논문에서는 ‘동성애 지지자들’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려 한다. 의도와 행위를 포함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전통적 성경 이해와 다른 해석을 통해 간접적 혹은 소극적으로 동성애를 수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1. 로마서 1:24-27에 대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해석과 이해

로마서 1:24-27에 대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해석은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본문 배경에 대한 논의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로마서 1:24-27와 창세기와의 연관성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연결성이 아예 없다고 여기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본다.<sup>6)</sup> 로마에 있는 독자들은 주로 이방인이었기에 그레코-로만 사회의 관습이나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 당시 유대교 태도들을 배경으로 로마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티 니시넨(Martti Nissinen)은 로마서 1:24-27의 배경은 구약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헬라적 유대교가 이해하는 자연에 대한 법칙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Nissinen, 1998: 107; Phipps, 2002: 128-131; Scanzoni and Mollenkott, 1978: 64; Hultgren, 2011: 97).<sup>7)</sup> 로빈 스크록스(R. Scroggs)는 동성애가 언급된 고린도전서 6:9-11이 당시의 이방인들의 성전 남창과 창녀 또는 소년을 상대로 남색하는 자들을 배경으로 하기에 로마서의 동성애 표현도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 관습을 토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Scroggs, 1983: 106-109, 116, 122). 이런 관점에 의하면 로마서 1:24-27은 그 배경이 구약 창세기 1-2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인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는 것”(롬 1:26, 27: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당시 인식되었던 성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서와 관련한 이런 배경 이해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Esstman; White).<sup>8)</sup>

로마서 1:24-27 해석과 관련된 두 번째 영역은 등장인물 이해이다. 그들에 의하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이방인이다. 모든 동성애 지지자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 대상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창녀와 남창, 혹은 스크록스가 주장하는 대로 남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어떤 이들은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애자들이 행하는 동성애나(Boswell, 1980: 109) 혹은 이성애자들이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라는 것이다(Miller, 1995: 1-11). 또 다른 사람들은 우상숭배 하는 동성애자이거나 난잡하게 성생활을 하는 동성애자라고 보기도 한다(Balch, 1998: 437-438). 이런 견해들은 본문 해석과 관련한 세 번째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로마서 1:24-27 이해와 관련된 세 번째 영역은 특정 단어와 표현이다. 특별히 논란이 되는 것은

---

6) 동성애 지지자들 중에 레즈비언 학자인 버나뎃 브루텐(Bernadette Brooten)과 같이 로마서 본문을 구약 창세기와 연결시키는 사람도 여럿 있기도 하다. 그녀는 로마서 1:24-27을 창세기와 구약 레위기 18:22과 20:13과 관련 있다고 본다(Brooten, 1996: 272-94). 하지만, 바울 당시의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 배경을 중시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7) 데일 마틴(Dale Martin)은 동성애에 대한 바울의 지적을 구약의 창조와 타락이 아닌 이방인들의 다신교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한다(Martin, 1995: 332-355).

8) 돈 이스트만(Don Eastman)은 “동성애, 죄도 아니고 병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의 전단지에서 동성애 신학을 소개할 때 로마서에 대한 이런 이해를 천명 한다(<http://mcccchurch.org/download/theology/homosexuality/NotSinNotSick.pdf> [검색일 2015.7.20]). 멜 화이트(Mel White)도 동일한 이해를 보인다(White, 14-15). 화이트에 대한 복음주의 반론은 Jones, <http://www.wheaton.edu/~media/Files/Centers-and-Institutes/CACE/booklets/StanJonesResponsetoMelWhite.pdf>. (검색일 2015.7.20.)을 보라.

‘순리(개역개정)’에 대한 이해이다. 헬라이어 원어는 ‘푸시스’(φύσις)인데 일반적으로 ‘본성(nature)’으로 번역된다. 문제는 이 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앞서 언급한 로마서 1:24-27 해석과 관련한 두 영역을 연결시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한다. 어떤 이들은 각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구약의 창조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바울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거나 표현했던 ‘본성’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가 인식했던 이성애의 본성, 혹은 헬라적 유대교가 보여준 이성애를 본성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반하는 이성애자들의 동성애를 바울이 문제 삼는 것으로 여긴다. 또 어떤 이는 이 본성을 ‘관습’과 동일시해서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성 역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성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남자의 주도적 역할과 여자의 수동적 역할이 본성(관습)인데, 여자와 여자 또는 남자와 남자가 관계할 때 그 관습이 깨지는 것을 바울이 지적했다는 것이다(Nissinen, 1995: 105). 여기에 더해서, 성교시 남자의 주도권은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남녀의 상하관계 혹은 힘의 서열구조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Brooten, 1996: 50). 어떤 이들은 로마서 1:26에 언급된 ‘역리로’(개역개정)라는 헬라이어 표현(παρὰ φύσιν; “과라 푸신”)을 ‘거스르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도한, 지나친’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에 의하면 본성과 관련해 바울이 비평한 것은 분수에 지나친 성관계 혹은 난잡한 성관계라는 것이다(Martin, 1995: 336 n. 11; Balch, 1998: 437). 본성과 관련한 이런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당시 특정한 사람들이 벌이는 개인적 성적 일탈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동성애 지지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예, Scanzoni, 1978: 66).

한편, 본성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본성의 범위이다. 당시의 그레코-로만 환경을 우선시하는 접근에 의하면 이 본성의 범위는 바울이 살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것은 또한 본성을 이해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고대 문헌 자료들에 의하면 동성애는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낯선 것이 아니었다(Keener, 2000: 14-15; Gagnon, 2002: 159-183). 여자들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상대적으로 문헌적 증거도 적다. 하지만, 남자들의 동성애는 다르다. 그리스의 제우스 신의 동성애나 네로 황제가 두 명의 남자 성적 대상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포함해 훨씬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자들의 동성애에 비해 남자들의 경우는 부정적 반응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 반응은 이성애를 정상으로 여겼다. 한편, 유대 문헌들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부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바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 이성애를 본성에 합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입장일 뿐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것은 본문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기에 거기서 다시 언급하자.

로마서 1:24-27 해석과 관련한 또 다른 영역은 이 부분을 담고 있는 문맥의 논리 구조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24-27 보다 로마서 2:1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본다. 비록 바울이 로마서 1:24-27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고는 하지만, 그 의도는 동성애 자체를 죄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며 곧이어 로마서 2:1에서 전개될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려는 일종의 “수사학적 뒷”이라는 것이다(Nissinen, 1998: 111-112). 다시 말해,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유대인의 죄의 핵심은 이방인을 비판하는 것이며(롬 2:1, 3-5) 그 유대인들의 자만 혹은 자기 확신을 깨기 위해 바울이 1:24-32에서 이방인의 상황을 묘사했다는 것이다(Furnish, 1985: 78-80; 1994a, 29; Edwards, 1984, 98-99; Martin, 1995: 337). 더 나아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 얻는 내용을 다루는 로마서 3:21-8:39가 상대적으로

로마서 1장 보다 중요하기에 동성애를 다루는 로마서 1:24-27에 큰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로마서 1:24-27에서 언급한 동성애는 바울의 논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유대인 비판을 위해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예나 혹은 경로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접근 방식을 따르면 바울이 로마서 1:24-27에서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했든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해는 다음에 설명할 본문 적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24-27에 대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해석은 다양하다. 그들 안에도 통일된 의견이 없는 듯하다. 우선 로마서 본문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구약 창세기 내용 보다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일차적으로 변수로 취해야 한다는 것은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방인의 상황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이방인인지는 합일된 견해가 없다. 이성애자들로 보기도 하고 동성애자들로 보기도 한다. 특정 단어, 특히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둘러싼 표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다. 설사 그것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그 구체적인 상황 이해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논리 구조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따라 동성애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의 것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찰들에 의하면, 동성애 지지자들은 로마서 1:24-27에 나타난 바울의 설명을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소수의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개인적 성적 일탈의 경우를 유대인 관점에서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 2. 로마서 1:24-27 내용에 대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현대적 적용

로마서 1:24-27의 내용을 현대 상황과 연결시킬 때 동성애 지지자들은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모두 앞서 언급한 로마서 본문 해석 과정과 잇닿아 있다.

첫 번째 전제는 바울의 로마서 1:24-27는 그 당시의 문화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바울 설명의 배경을 구약 창세기가 아니라 당시의 그레코-로만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중심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그들은 본성과 관련한 바울의 동성애 논의가 당시의 인식 범위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 논의를 21세기 현대 상황과 바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바울 당시에는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 혹은 심리학적 지식수준이 오늘날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비과학 정보를 가진 바울의 평가를 과학 문명이 발달된 현대 사회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Furnish, 1994b: 57-66; Scanzoni, 1978: 64).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애 성향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경험되고 확인된(?) 동성애 성향이 로마서 1:24-27의 내용을 현대에 적용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동성애 성향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본성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댄 비아(Dan O. Via)는 만일 바울이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 성향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면 로마서 1:24-27처럼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Via, 2003: 16). 더 나아가 월터 윈크(Walter Wink)는 동성애 성향이 인간 본성 중의 하나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고 이성애를 하는 것이 바울이 비판한 것에 대한 현대적 적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Wink, 1999: 33-49).

로마서 1:24-27의 해석을 현대에 적용할 때 사용되는 두 번째 전제는 로마서가 말하는 동성애는 보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이 지적한 것은 소수 특정한 사람들의 개인적 성적 일탈이기 때문

에 소수의 경우를 침소봉대하여 모든 동성애의 경우로 확장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성을 거스른다는 표현을 본성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혹은 지나친 것으로 이해한다면 로마서 1:26-27의 사람들은 과도한 성적 집착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 사람을 상대로 서로 동의하에 헌신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건전한(?) 동성애자들에게는 바울의 지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Via, 2003: 25).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4-27은 우상 숭배자와 동성애자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들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한다(Eastman).

한편, 이런 전제들은 적용과 관련해 두 가지 파생 질문들을 낳았다. 그 하나는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성경이 시대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과거의 사회-문화를 다룬 것을 현대에 바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과학이나 사회-인류학적 지식의 증가로 성경에 대한 접근이나 해석 그리고 적용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에 과거 바울이 했던 그 해석을 공유해야 하는지도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를 비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가부장적 태도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아니, 그렇게 지나치게 나가지 않더라도 과거 바울의 논의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현대의 동성애 문제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대의 발견과 지식에 성경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국 동성애 지지자들은 공개적이든 그렇지 않은 시대에 따른 사회 현상과 인간의 지식 증가를 성경의 권위와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성애 문제는 성경이 인간 사회를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성경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또 다른 파생 질문은 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 자체를 보편적 죄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소수 특정한 사람들의 개인적 성적 일탈이기에 동성애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성애 성향의 사람들도 이런 일탈을 흔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성과 죄와의 연결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바울이 동성애를 죄처럼 취급한 것은 현대에서 말하는 동성애 성향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일 알았다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죄에 대한 정의가 시간에 따라,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재정의 된 것이다. 첫 번째 파생 질문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문제는 성경이 죄를 규정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죄를 규정하는 성경을 평가하는가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이런 전제들과 파생 질문들을 담고 있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로마서 본문의 현대적 적용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성경은 과학 시대 이전의 글이기 때문에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 최종 권위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2) 성경의 내용은 그 당시 문화의 산물이다. 시간에 따라서 내용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 3) 동성애 성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 중의 일부이다. 비록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현대 과학과 임상적 지식이 보증한다.
- 4)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또한 치유해야 할 중독성 있는 병도 아니다.

### III. 바울의 의도를 찾아서: 로마서 1:24-27의 분석과 이해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로마서 1:24-27 해석과 적용 원리가 설득력 있는 것일까? 이제, 로마

서 본문의 내용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본문 읽기와 적용 원리를 평가해보자. 이를 위해 로마서 1:24-27을 담고 있는 문맥을 먼저 고찰 할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훌쩍리듯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한 인접 문맥과 전체 문맥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후, 로마서 1:24-27에 집중해서 본문의 구조를 확인하고 동성에 지지자들이 본문을 접근하는 네 영역을 따라서 살펴볼 것이다.

## 1. 로마서 1:24-27의 문맥 이해

### (1) 큰 구조에서 작은 구조로

로마서 1:24-27의 위치와 기능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전체에서의 위치와 그에 따른 논지 전개 역할을 살펴야 한다. 로마서 전체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9)</sup> 발신자와 수신자, 인사말이 담긴 서론(롬 1:1-7)과 독자를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롬 1:8-17),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주요 내용인 몸말(롬 1:18-11:36),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권면들(롬 12-15장) 그리고 결어(롬 16장)가 그것이다. 편지의 몸말은 복음에 대한 전체 묘사를 제공하는 로마서 1:18-8:39와 그 복음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로마서 9-11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로마서 1:24-27은 복음에 대한 전체 설명 부분에 속해 있다.

복음에 대한 전체 설명 부분(롬 1:18-8:39)은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로마서 1:18-5:11과 5:12-8:39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sup>10)</sup> 로마서 1:18-5:11에서는 상호 작용 설명 틀로서 구원을 제시한다. 상호 작용 설명 틀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과정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등장인물과 서로를 향한 행위와 태도를 보여주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선행(先行) 활동 → 인간의 반응 →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로마서 5:12-8:39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그에 대한 반역의 통치 영역이라는 두 영역의 대조로써 구원을 설명한다. 유대 묵시 사상의 종말 개념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아담에서 시작한 반역의 통치를 그리스도가 회복하는 그림을 담고 있다. 앞의 상호 작용 설명 틀과는 다른 형태의 동사와 용어, 상징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두 영역의 대조를 설명할 때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이동과 머무름, 존재나 상태에 대한 동사들이 사용되고, 통치권과 관련한 노예 제도, 결혼, 다스림 등의 표현들을 사용된다. 모두 상호 작용 설명 틀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반역한 어둠의 영역에 인간이 노예처럼 속해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상호 작용 설명) 성령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로마서 1:24-27은 상호 작용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에 속해 있다.

9) 당시의 보편적 서신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세 부분이다. 바울 서신은 독특하게 독자를 향한 감사와 기도 부분과 윤리적 권면 부분을 추가한 것이 많다. 추가된 두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세 부분(추가 부분 없음) 혹은 다섯 부분(두 부분을 추가함) 구조로 이해한다. 본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본다 (참고, Porter and McDonald, 2000: 380-6).

10) 이런 구분은 로마서 연구자들 중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에 속한다. 이런 구분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ee, 2010: 99-443; 2010: 183-215를 보라.

조금 더 좁히면, 상호 작용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로마서 1:18-5:11은 상호 작용 형태에 따라 로마서 1:18-3:20과 3:21-5:11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반응, 인간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기본 형태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먼저 로마서 1:18:3:20은 하나님의 시작에 인간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거절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라는 부정적 응답을 인간에게 나타내신다. 로마서 3:21-5:11은 다르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시작에 인간이 믿음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그에 대해 하나님도 구원의 긍정적 응답을 하신다. 앞부분에 대한 반대 상황이다. 로마서 1:24-27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정적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속해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그리 밝지 않다.

부정적 상호 작용을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1:18-3:20은 대상 등장인물에 따라 크게 로마서 1:18-2:11과 2:12-3:20로 구분할 수 있다.<sup>11)</sup> 로마서 1:18-2:11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sup>12)</sup> 하지만, 로마서 2:12-3:20은 그 주된 대상이 유대인으로 옮겨간다. 로마서 2:12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언급하고 2:17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서 1:24-27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부정적 상호 작용을 묘사하는 시작 부분에 속해 있으며, 모든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일부분이다.

로마서 1:18-2:11의 구조는 인칭에 대한 정보에 따라 로마서 1:18-32, 2:1-5, 2:6-11로 구분할 수 있다. 로마서 1:18-32는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삼인칭으로 설명한다. 로마서 2:1-5는 이인칭을 사용하여 로마서 1:18-32에 언급한 사람들을 비평하면서도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언급한다. 로마서 2:6-11은 왜 로마서 1:18-32와 2:1-5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삼인칭으로 설명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 때문이다. 로마서 1:24-27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부분에 속해 있다. 이상의 전체 구조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로마서 전체 구조				
서론 (1:1-7)	감사와 기도 (1:8-16)	몸말 (1:18-11:36)	삶에 대한 권면 (12-15장)	결어 (16장)
		복음에 대해 (1:18-8:39)	유대인에 대해(9-11장)	
		상호 작용 설명 틀(1:18-5:11)	두 영역 설명 틀(5:12-8:39)	
		부정적 상호 작용(1:18-3:20)	긍정적 상호 작용 (3:21-5:11)	

11) 이런 구분도 로마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주류 견해가 아니다. 보통 로마서 2:1부터 유대인을 대상으로 논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로마서 2:12부터 유대인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할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로마서 1:24-27과 관련된 논리 구조 설명에서 다룰 것이다.

12) 이 역시 주류 견해는 아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등장인물을 다룰 때 제시할 것이다.





상호 작용의 마지막 과정인 하나님의 응답은 로마서 1:24-32에서 설명된다. 인간의 거절을 언급한 로마서 1:21-23과 달리 하나님을 행위의 주된 주체로 표현한다. 특별히 “파라디도미”(παράδομι: 롬 2:24, 26, 28)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 의지와 행위를 보여준다. 개역개정 성경은 “내버려 두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겨주다”는 의지적 결단과 행위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막 3:19). 하나님의 심판은 적극적이다. 주목할 것은 로마서 1:24-32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서 1:21-23에서 설명한 인간의 부정적 반응의 외적 차원과 내적 차원에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이다.

먼저 로마서 1:24-27은 행위와 태도의 외적 차원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피조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꾼 것’(롬 1:23, 25)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성적인 영역에서 바꿈의 행위(롬 1:26, 27)를 하는 동성애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내적인 차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주로 외적 행위와 태도에 주목해서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부정적 반응을 내적 외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각 차원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부정적 반응의 내적 차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28-32에서 설명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체계(개역개정은 “마음”으로 번역했음)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을 하나님 진노의 궁극적 원인으로 설명한다.<sup>13)</sup>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주를 배제한 그들의 망가진 사고체계(개역개정은 “마음”으로 번역했음)<sup>14)</sup> 속으로 던져 넣으셨다(“파라디도미”). 그 결과 인간들은 온갖 못된 것을 행한다. 내적으로 망가진 인간의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부정적 반응이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것처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 외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을 아우르는 총체적 반응이다. 이런 구조 속에 로마서 1:24-27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 반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행위와 태도의 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한 부분이다. 로마서 1:18-32의 구조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다.

부정적 상호 작용 (롬 1:18)	<p style="text-align: center;"><u>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u> (하나님의 진리 계시 → 진리를 거절한 인간의 부정적 반응 → 하나님의 진노)</p>
각 요소 설명 (롬 1:19-32)	<p>(1)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롬 1:19-20) - 피조물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p> <p>(2) 인간의 부정적 반응을 설명(롬 1:21-23) 1) 행위와 태도 등의 외적 차원(롬 1:21상반, 23) -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로 바꾸어 경배함 2) 인지/생각 등의 내적 차원(롬 1:21하반-22)</p>

13) 개역개정의 번역은 올바르지 않다. 헬라어 원어는 “에피그노시스”(ἐπίγνωσις)인데 ‘지식’이라고 번역해야 하며 지식체계 혹은 가치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14) 이 역시 바른 번역이 아니다. 헬라어로는 사고체계를 의미하는 단어(νοῦς, “누스”)이기 때문이다.

	-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게 됨
	(3)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을 설명(롬 1:24-32)
	1) 행위와 태도 등의 외적 차원에 대한 응답(롬 1:24-27)
	- 성적 영역에서 바꿈의 욕망 속으로 던져 넣어 바꿈의 행위를 하게 함
	2) 인지/생각 등의 내적 차원에 대한 응답(롬 1:28-32)
	- 하나님을 거절한 망가진 지식체계 속으로 던져 넣어 악한 일을 행하게 함

(표 2)

(2) 문맥 분석을 통한 관찰들

로마서 1:24-27을 서신 전체의 큰 문맥에서 시작해서 인접 문맥으로 좁히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관찰과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로마서 1:24-27은 바울 당시의 사회-문화 속에 있는 개개인의 상황만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로마서 전체 내용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관련 있다. 그는 서론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연관지어 자신을 소개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그 복음을 자신과 같은 유대인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으로 소개한다(롬 1:1-5). 이 복음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이고(롬 15:18-19), 이후 스페인에 가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다(롬 15:23-24). 이런 언급들은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유대인의 미래 상황을 다루는 로마서 9-11장에서도 이 복음의 내용을 핵심으로 제시한다. 이는 편지 몸말 전반부(롬 1:18-8:39)에서 설명한 복음의 내용이 단순히 바울 시대의 상황을 다루거나 혹은 그것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게 한다. 물론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문화 현상을 염두하고 서술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부분적 내용들이 로마 교회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로마서 1:18-8:39는 인간과 세상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 진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관찰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는 두 가지 설명 틀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서 1:18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바울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 작용의 커다란 틀 속에서 설명한다. 이 설명 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은 특정 시대에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다. 창조주께 반응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다. 한편, 로마서 5:12-8:39에서 사용된 두 영역 설명 틀도 마찬가지다. 비록 아담이라는 구체적 한 인물이 명시되었지만, 그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롬 5:12-14)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영역도 그 적용 범위를 시대를 불문한 모든 사람들로 한다(롬 5:15-21). 따라서 비록 로마서 1:24-27이 당시의 동성애라는 사회-문화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현상을 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보편적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Hays, 1986: 184-215; Jewett, 2007: 177).

둘째, 로마서 1:24-27은 창조주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이 부분을 담고 있는 로마서 1:18-32의 논리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부정적 상호 작용 과정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할 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상호 작용의 시작자이자 인간이 반응해야 할 대상으로 소개한다(롬 1:19-20). 그분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분이요 창조 이후 지금까지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분을 거절한다(롬 1:21-23). 이 거절은 단순히 초월적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자신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서 1:24-27도 창조주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내용을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을 다루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 다르다.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 벌이는 난잡한 성적 일탈이나 이성애주의자들이 동성애를 보는 시각 등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의 핵심은 창조주와의 관계성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로마서 1:24-27은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한 구약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sup>15)</sup>

셋째, 죄는 단순히 행위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다. 로마서 1:21-23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이들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바울은 두루뭉술하게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는다. 의미가 있다. 전인격적 거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부정적 반응의 모습은 로마서 1:28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체계 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이 본질적 상태이고 그 망가진 상태로 인해 온갖 악한 일이 발생된다. 전자를 근원적인 죄(The Sin)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파생된 죄들(sins)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로마서 1:18-32에서 인간이 창조주를 거절하는 것이 죄라면, 그 죄는 근원적 죄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죄들로 표현되는 반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1:24-27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언급된 인간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 있는 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부정적 상호 작용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원적 죄는 아니다. 로마서 1:21-23에서 설명한 행위와 태도와 관련한 외적 차원과 연결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근원적 죄에서 파생한 죄들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보편적인 원리이다. 만일 로마서에서 말하는 긍정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구원, 즉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인간들이 믿음으로 응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원리라면, 그것과 반대되는 인간의 거절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보편적이다. 이 원리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차별 없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설명한 로마서 2:6-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분의 심판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비록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긍정적 상호 작용 과정이 있다고 해도 창조주를 거절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 상호 작용 과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성애 역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만일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없다. 그러나 위의 세 번째 원리에서 보는 것처럼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 있는 반역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원리가 있어도 그

15) 위더링톤(B. Witherington)은 로마서 1:18-32가 창세기 2-3장 보다는 솔로몬의 지혜서 10-14장과 더 유사하다고 지적한다(Witherington, 2004: 68). 하지만, 지혜서의 그 부분도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한다(지혜서 10:1). 이것은 지혜서 역시 구약의 창세기를 배경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것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잘못이다.

## 2. 로마서 1:24-27의 구조 이해

로마서 1:24-27의 구조는 “하나님이 넘겨주다(“파라디도미”)라는 진노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구체적 예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작은 로마서 1:24이다. 인과접속사 “그러므로”를 통해 사람들의 행위적 차원의 거절, 즉 하나님에서 다른 피조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꾼 로마서 1:23의 서술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소개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 마음에 있는 정욕 안으로 넘겨주어 그들의 몸을 서로 수치스럽게 만드셨다. 하나님 진노의 예는 로마서 1:26하반에서 27에 제시된다. 여자들의 동성애를 먼저 설명하고 남자들의 경우를 묘사한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논리 전개 중간에 두 가지를 첨가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롬 1:25)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서 1:24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재진술한 것(롬 1:26상반)이다. 특별히 로마서 1:25는 주목할 만하다. 창조주를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아주 독특한 첨가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로마서 1:24-27의 이런 구조에 의하면 바울이 전달하려는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실재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원인은 창조주를 거절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표현한 점이다. 로마서 1:24와 26상반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련의 과정으로 묘사한다. 그 시작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정욕이다(롬 1:24). 이 정욕은 더러움(롬 1:24)과 부끄러운 욕심(롬 1:26)이라고 표현되는데, 섬김의 대상을 창조주에서 자신을 비롯한 피조물로 바꾼 것에서 나온다(롬 1:25).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정욕 안으로 그들을 던져 넣은 것이다(롬 1:25). 세 번째는 그 결과를 사람들 스스로가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롬 1:24)과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은 것(롬 1:27)으로 표현한다. 눈여겨 볼 것은 로마서 1:26-27에 언급된 여자들과 남자들의 동성애가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예로서 제시된 점이다. 하나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진노의 모습 혹은 결과라는 것이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Käsemann, 1980: 47; Hays 1994: 8-9). 이런 관찰은 몇 가지 중요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첫째,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 진노의 결과라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비슷한 경우가 로마서 1:28-31에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28은 창조주를 자신들의 가치체계/지식체계 속에서 거절하고 배제한 근원적 죄(The Sin)를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망가진 사고/생각의 영역 안으로 던져 넣으시는 것을 하나님 진노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든 합당하지 않은 것들(sins)을<sup>16)</sup> 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 또한 진노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로마서 1:29-31에 제시된 악한 일들과 로마서 1:26-27에서 서술한 동성애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과정에서 동일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마서 1:29-31에 언급된 항목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이

16)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개역개정).

아닌 것처럼 동성애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로마서 1:29-31에서 언급된 악한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정하심과 관련된 것이라면(롬 1:32) 동일 과정 속에 위치한 동성애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일들이다.

둘째, 동성애가 하나님 진노의 결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온전한 모델이 아니라 는 의미가 된다. 로마서 1:29-31에 언급된 항목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담이 근원적인 죄를 범한 이후(롬 5:12; 참고, 창 3:1-6) 하나님께 반역하는 통치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진노의 과정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성애 역시 창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창조주를 거절하는 근원적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죄들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동성애 성향을 창조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보려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은(예, Via, 2003: 25, 33.) 로마서 1:24-27의 내용과 반대이다.

셋째, 동성애가 하나님 진노의 결과라면 동성애의 존재는 현 세대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해주는 표지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실재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는 세대라는 것이다.

### 3. 로마서 1:24-27의 내용 이해

로마서 1:24-27에 대해 살펴 볼 마지막 항목은 내용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의 본문 이해를 다룰 때 제시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맨 처음 질문은 로마서 1:24-27의 배경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부분을 구약 창세기가 아닌 당시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나 평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로마서 1:24-27은 창세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맥 증거 뿐 아니라 본문 안에서도 그 증거들이 있다. 그 하나는 로마서 1:25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리’를 바꾼 것으로 묘사한다(참고, 롬 1:18). 이 진리는 피조물을 통해 드러낸 창조주의 속성(롬 1:19-20)을 의미하기에 로마서 1:25는 창조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있다. 인간들이 경배 대상을 바꾼 것을 묘사할 때 신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로마서 1:23의 표현 대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꾸었다고 표현한다. 창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로마서 1:26-27에 있다. 우리말 성경은 동성애 주체들을 말할 때 남자와 여자로 표현했지만, 성경 원문은 다르다. 남자(άνήρ: “아네르” 혹은 ἄνθρωπος: “안드로포스”)와 여자(γυνή: “구네”)라는 사회적 구분 대신 수컷(ἄρσεν: “아르센”)과 암컷(Θήλυς: “텔루스”)이라는 생물학적 구분을 사용한다. 이 표현은 헬라어 구약 성경(LXX)의 창조 이야기(창 1:27)를 반영한 것으로(Jewett, 2007: 174) 신약에서는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마 19:4; 막 10:6)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3:28에만 나타난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수컷과 암컷의 결합이 창조 때부터 계속 이어 온 결혼의 원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sup>17)</sup> 이런 증거들에 의하면 로마서 1:26-27의 표현들은 창세기의 결혼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수컷과 암컷이라는 단어를 통해 동성애는 창세기에서 언급한 것이 변질되었음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Malick,

17)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세기 1:27에 언급된 수컷과 암컷이란 표현으로 창세기 2:24에서 말한 아내와 남편의 연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France, 2002: 392).

1993: 333-335; Gagnon, 2002: 289-97).

로마서 본문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등장인물에 대한 것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방인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한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취한다.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꼭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사사기 19:22-25에 나타난 사건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의 원인을 그들 가운데 왕이 없기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삿 17:6; 21:25). 참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거절했던 것이다. 로마서 1:18-32에서 말하는 것과 닮아 있다. 두 경우 모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근원적인 죄에서 시작된 죄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동성애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창조에서 시작된 모든 세대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의도를 고려한다면 이 동성애 현상을 꼭 이방인에게만 국한시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약의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동성애는 아담 이후 창조주를 거절하는 반역의 통치 안에서 언제나 그리고 민족을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로마서 1:24-27의 이해를 위한 세 번째 접근은 단어와 표현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순리(본성)’에 대해 동성애 지지자들은 여러 견해들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 부분이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별히 수컷과 암컷이라는 표현을 통해 창세기에서 제시한 결혼 이해와 연결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본성’이라는 것 역시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본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어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28 표현에 집중해서 이 본성을 자녀 생산과 연결시키고 동성애를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기에 반대했다고 보기도 한다(Davies, 1995: 315-331; Ward, 1997: 263-284). 하지만, 결혼의 목적이 꼭 자녀를 낳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2-5에서 성적 욕망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개그넨(R. A. J. Gagnon)은 결혼에 대해 처음 언급한 창세기 2:27을 주목한다. 나누어진 아담의 몸이 하와와의 결합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결혼과 남녀의 성교의 ‘본성’이라고 주장한다(Gagnon, 2009: 61, 89). 일리가 있다. 창세기의 내용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동일한 원리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24-27이 말하는 본성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대한 창조주의 원리와 관련 있다. 그 안에 동성애끼리의 연합은 없다.<sup>18)</sup> 따라서 본성을 거스른다는 표현은 개인적 성향이나 문화적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제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 의도나 뜻, 특별히 남녀의 결혼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성과 관련한 또 다른 논의는 바울이 현대 사회가 말하는 동성애 성향을 알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현대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의 논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현대의 관찰을 통해 과거 본문을 해석하는 시대착오라고 비판 받을 만하다(Hays, 1986: 200; Jewett, 2007: 177). 뿐만 아니라, 바울이 동성애와 관련한 성향을 전혀 몰랐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동성애와 관련한 과정을 소개할 때 사람들을 그들 마음에 있는 정욕(롬

---

18) 동성애 지지자들은 창조 이야기에서나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신 것, 그리고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비해 아주 극소수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1:23)과 부끄러운 욕심(롬 1:26)에 던져 넣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들의 동성애를 묘사할 때 그들이 남자 서로를 향한 욕망에 불타올랐다고 말한다. 이미 내적으로 강하게 끌리는 어떤 것이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롬 1:27). 뿐만 아니라, 비록 현대적 표현은 아니더라도 바울은 죄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힘은 인간의 의지와 정서, 판단을 휘어지게 하고 때로는 인간적 본성이라고 여기는 것마저 망가지게 한다. 로마서 7:13-25에 묘사된 죄와 ‘나’와의 투쟁이 그 좋은 예이다. 그는 또한 강렬한 성적 열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7:9에서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바울이 동성애 성향에 대한 현대 논쟁은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인간의 근원적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들의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그 안에 강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sup>19)</sup>

로마서 1:24-27 이해를 위한 네 번째 접근은 본문을 담고 있는 부분의 논리 구조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로마서 2:1-5의 내용을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보고 로마서 1:18-32를 유대인을 공격하기 위한 예시 단계쯤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바울이 동성애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20)</sup> 하지만, 로마서 2:1-5의 등장인물을 유대인만으로 한정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2:1의 인과접속사 ‘그러므로’(διό: “디오”)이다. 만일 로마서 1:18-32와 2:1-5가 서로 다른 그룹이라면 ‘그러므로’의 연결은 부자연스럽다. 이방인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유대인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자연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로’(ὡς: “호스”나 ὡσπερ: “호스페르”)라는 접속사 연결이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 사본은 없다. 본문 그대로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로마서 1:18-32와 2:1-5를 같은 그룹으로 보고 삼인칭에서 이인칭 ‘너’라고 좁혀서 그 상황 속에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참조, Lee, 2010a: 130-133; 2010b: 188 n. 12). 실제로 로마서 1:29-32에서 말한 죄악의 상황이 이방인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이 뿐 아니라,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로마서 2:1-5의 문제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한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다(Schreiner, 1998: 107; Lee, 2010a: 134-135). 이런 이해를 토대로 하면 바울의 의도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보편적 상황을 로마서 1:18-32에서 삼인칭으로 제시하고 로마서 2:1-5에서 이인칭을 통해 독자를 비롯한 소위 윤리적 사람들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 전개 이해에 의하면 로마서 1:18-32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속에 있는 로마서 1:24-27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서 1:24-27의 역할이 로마서 1:18에서 언급한 부정적 인간 반응의 외적 차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길 수는 없다. 더 나아가 로마서 3:21부터 은혜의 구원이 설명되기 때문에 로마서 1:18-32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부정적 상호작용과 긍정적 상호 작용으로 구원을 설명한 바울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바울은 여타 모든 구원 설명에서 이 순서를 유지한다. 심지어

19) 동성애 지지자들의 ‘불가항력적 본성적 성향’ 주장에 대한 반론은 Gagnon, 2002: 395-431; Jones and Yarhouse, 2000; Jones and Kwee, 2005: 304-16을 참조하라.

20) 최근에 캠벨(D. A. Campbell)은 로마서 1:18-32는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 대적자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며, 로마서 2:1에 가서야 바울의 진짜 목소리가 나온다는 주장을 한다(Campbell, 2009). 이것의 의하면, 동성애를 언급한 로마서 1:24-27은 바울 대적자의 논리가 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Matlock, 2011: 115-49; Lee, forthcoming)을 보라.



예수님의 첫 선포도 구원이 아니라 회개였다(막 1:15). 따라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고 그것에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은혜의 구원은 사상누각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24-27 본문 내용 자체를 살펴봐도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배경적으로도 바울의 논리 전개와 기본적 전제는 창세기의 창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등장인물도 이방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만을 염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유대인을 포함한 보편적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부정적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어와 표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접 문맥과 보다 큰 문맥,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논리 구조에 의하면 동성애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현대적 본성 개념은 바울이 제시하는 것과 다르다. 또한 그 본성의 범위도 단순히 그 당시 문화적 범위를 넘어 창조주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로마서 1:24-27은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바르게 진단해야 구원의 긍정적 상호 작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4. 로마서 1:24-27 해석에 대한 현대적 적용 원리

위에서 얻어진 로마서 1:24-27의 분석을 현대의 상황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제시한 것과 다른 전제들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역시 본문 고찰을 통해 얻은 것이다. 첫째, 로마서 1:24-27은 단순히 인간의 문화와 사회 현상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를 기초로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부정적 상호 작용 모습과 그 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의 원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시대 역시 창조주와 인간과의 부정적 관계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로마서 1:24-27이 말하는 동성애는 당시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물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마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당시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표현되었다는 것은 동성애 그 자체가 창조주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정적 상호 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역시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런 두 전제를 토대로 바울이 로마서 1:24-27에서 제시하는 동성애에 대한 원리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다.

1) 비록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모든 세대에 다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의 뜻을 드러내는 최고의 통로이다.

2) 인간 지식이 많아지면서 성경의 이해의 폭이 확장될 수 있지만, 성경 저자가 제시하는 것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는 저자가 제시하는 논리 구조와 본문 전달의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동성애는 단순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4) 결혼과 관련한 창조주의 뜻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창세기와 예수님, 바울이 공통적으로 인

정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다.

5) 동성애는 창조주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며 창조주를 거절한 인간의 근원적 죄에서 파생된 죄들의 하나이다.

6) 동성애 성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본성의 일부가 아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향한 죄들의 하나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7) 동성애의 존재는 인간이 창조주와 부정적 관계에 있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IV. 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본 논문은 동성애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 본문인 로마서 1:24-27을 살펴보았다. 비록 동성애 지지자들이 동일 본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바울의 논리 전개에 충실하게 따라가 본 결과 그들의 주장들은 바울이 전달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성경 본문을 따라 위와 같은 원리들이 얻어졌다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 그 실제적 적용은 진리와 사랑을 조화시키는 원리일 것이다. 진리를 진리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지만, 사랑의 원리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문제들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에서 벌어진다. 진리만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정죄의 칼을 막 휘두르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또 사랑만을 강조하면 사람을 하나님 보다 높게 두고 진리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도 이 둘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 요한복음 8:1-11에 나온 간음한 여인을 다루시는 모습은 좋은 예이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또한 그 여인이 계속 그 죄를 짓고 살라고 명한 적도 없다. 비록 죄가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으면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기대하신 것이다. 이런 진리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 기독교 공동체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으로 구분지어 몇 가지를 제시하려 한다.

기독교 공동체 내적 차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동성애를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적 관찰과 경험을 넘어 창조주의 뜻이 계시된 성경이 일관되게 제시한 원리임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싫어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뜻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 때, 그 가르침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주입하는 형식이 아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 본문이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경 자체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비록 동성애가 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근원적인 죄(The Sin)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들(sins)을 구분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흔한 문제는 파생적 죄들을 해결하는 것을 구원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물론 파생적 죄들이 윤리와 관련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참다운 구원은 없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동성애는 죄다. 하지만, 파생적인 죄들 중 하나이기에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마치 주일학교에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근원적인 죄와 파생적 죄를 구분하지 않아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이슈로 부각된 파생적 죄들의 하나를 절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동성애가 좋은 예이다. 이슈로 부상되었기에 마치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착각이다. 동성애는 파생적 죄들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이외에도 수많은 파생적인 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실재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체계/지식체계 속에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근원적 죄를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피상적인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결국, 기독교 공동체에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가르침을 제공해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근원적 죄와 파생적 죄들 사이의 관계성을 분별하며 대하는 것을 권면해야 한다.

세 번째로 동성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주고 진리를 가르침으로 죄를 인식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가 먼저 바른 진리로 탄실하게 서고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죄의 영향력이 강하고 질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동성애 성향은 강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제일 강한 것은 아니다. 모든 죄는 끈질기고 사악하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동성애 성향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성화의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죄와 갈등하고 싸우는 것임을 인식하고 서로 지지해주며 함께 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세상이 듣고 따를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의 최종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통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소개해야 한다. 그들은 파생적인 죄들을 행하는 사람이며 그 내면에는 근원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다. 모든 사람이 근원적인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는 차별이 없다. 그들도 어느 그리스도인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진리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적개감이나 혐오감을 가진 태도와 행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를 막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의 증거가 힘이 없는지 모른다. 물론 교회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해도 세상이 교회의 증거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통로이어야 한다. 특별히 가정과 성적인 영역에서 창조주가 의도하신 것을 잘 드러내는 좋은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동성애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담 이후 계속 있어 온 죄악의 한 모습이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증거 중의 하나이다. 세상의 죄악들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동성애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교회들이 동성애와 열심히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는 것이 그 한 예일 것이다. 한국의 상황도 점점 기독교에게 불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에 압도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은 늘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둠의 영역에 오셔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더욱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더욱 잘 알고 세상의 소리를 분별해야 한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진리로 사랑하는 것 역시 더더욱 요구된다. 결국,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교회와 신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시대 모든 문제의 유일한 대안이다.

## 참고 문헌

- 이재현 (2010).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Canon & Culture』 .8. 183-215.
- Balch, D. L. (1988). “Romans 1:24-27, Science, and Homosexuality.”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25. 433-440.
- Boswell, John (1980).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oten, B. J. (1996). *Love between Women: Early Christian Responses to Female Homoerotic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bell, D. A. (2009). *The Deliverance of God: An Apocalyptic Rereading of Justification in Paul*. Grand Rapids: Eerdmans.
- Davies, M. (1995). “New Testament Ethics and Ours: Homosexuality and Sexuality in Romans 1:26-27.” *Biblical Interpretation* 3. 315-31.
- Edwards, G. R. (1984). *Gay/Lesbian Liberation: A Biblical Perspective*. New York: Pilgrim.
- Eastman, D. “Homosexuality; Not A Sin, Not A Sickness.” <http://mccchurch.org/download/theology/homosexuality/NotSinNotSick.pdf>. (검색일 2015.7.20)
- Fredrickson, D. E. (2000). “Natural and Unnatural Use in Romans 1:24-27: Paul and the Philosophic Critique of Eros.” in D. L. Balch (Ed.) (2000). *Homosexuality, Science, and the Plain Sense of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 Furnish, V. P. (1985). *The Moral Teaching of Paul: Selected Issues*. (2nd ed.). Nashville: Abingdon.
- \_\_\_\_\_. (1994a). “The Bible and Homosexuality: Reading the Texts in Context.” in J. Siker (Ed.). (1994a). *Homosexuality in the Church: Both Sides of the Debat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 \_\_\_\_\_. (1994b).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Homosexuality.” in S. B. Geis and D. E. Messer (Eds.). (1994b). *Caught in the Crossfire: Helping Christians Debate Homosexuality*. Nashville: Abingdon.
- Gagnon, R. A. J. (2009).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Key Issues.” in D. O. Via and R. A. J. Gagnon (Eds.). (2009). *Homosexuality and the Bible: Two Views*. Minneapolis: Fortress.
- \_\_\_\_\_. (2003). *The Bible and the Homosexual Practice*. Nashville: Abingdon Press.
- \_\_\_\_\_. “Notes to Gagnons Essay in the Gagnon-Via Two Views Book.” <http://www.robagnon.net/2Views/HomoViaRespNotesRev.pdf>:updated. (검색일 2015.7.20)
- Hays, R. B. (1986). “Relations Natural and Unnatural: A Response to John Boswells Exegesis

- of Romans 1."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4. 184-215.
- \_\_\_\_\_. (1994). "Awaiting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The Witness of Scripture Concerning Homosexuality." in J. S. Siker (Ed.). (1994). *Homosexuality in the Church: Both Sides of the Debat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 Horner, T. Jonathan (1978). *Loved David: Homosexuality in Biblical Times*. Philadelphia: Westminster.
- Jewett, R. (2007). *Rom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 Jones, S. "A Study Guide and Response to Mel Whites What the Bible Says and Doesn't Say about Homosexuality." <http://www.wheaton.edu/~media/Files/Centers-and-Institutes/CACE/booklets/StanJonesResponsetoMelWhite.pdf>. (검색일 2015.7.20)
- Jones, S. L. and M. A. Yarhouse (2000). *Homosexuality: The Us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Church's Moral Debate*. Downers Grove: InterVarsity.
- Jones, S. L and A. W. Kwee (2005). "Scientific Research, Homosexuality, and the Church's Moral Debate: An Update." *Journal of Psychology & Christianity* 24. 304-316.
- Käsemann, E. (1980). *Commentary on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 Keener, C. S. (2000). "Adultery, Divorce." in S. E. Porter and C. A. Evans (Eds.). (2000). *Dictionary of New Testament Backgroun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Lee, Jae Hyun (2010).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 \_\_\_\_\_. (Forthcoming). "We Need the Gospel: A Response to D. A. Campbell with regard to Paul's Diagnosis of the Human Predicament."
- Malick, D. E. (1993). "The Condemnation of Homosexuality in Romans 1:26-27." *Bibliotheca Sacra* 150. 327-340.
- Martin, D. B. (1995). "Heterose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Romans 1:18-32." *Biblical Interpretation* 3. 332-55.
- Matlock, R. B. (2011). "Zeal for Paul but Not According to Knowledge: Douglas Campbell's War on Justification Theor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4. 115-49.
- Miller, J. E. (1995). "The Practices of Romans 1:26: Homosexual or Heterosexual?" *Novum Testamentum* 37. 1-11.
- Nissinen, Martti (1998). *Homoeroticism in the Biblical World: A Historical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 Phipps, W. (2002). "Paul on 'Unnatural Sex.'"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29. 128-131.
- Porter, S. E. and L. M. McDonald (2000). *Early Christianity and Its Sacre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 Scanzoni, L. and V. R. Mollenkott (1978). *Is the Homosexual My Neighbor?* San Francisco: Harper & Row.
- Schreiner, T. R. (1998).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 Scroggs, R. (1983). *The New Testament and Homo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 Tate, Russ (2003). "Homosexuality: Not a Sin - Not a Sickness': Towards an Evaluation of Pro-Gay Theological Perspective." *Evangel* 21. 77-89.
- Via, D. O. (2009). "The Bible, the Church, and Homosexuality." in D. O. Via and R. A. J. Gagnon (Eds.). (2009). *Homosexuality and the Bible: Two Views*. Minneapolis: Fortress.
- Ward, R. B. (1997). "Why Unnatural? The Tradition behind Romans 1:26-27." *Harvard Theological Review* 90. 263-284.
- White, Mel. "What The Bible Says-And Doesn't Say-About Homosexuality." 14-15.

[<http://pflagflint.com/whatthebiblesays.pdf>. (검색일 2015.7.20)]

Wink, W. (1999). "Homosexuality and the Bible." in W. Wink (Ed.). (1999). *Homosexuality and the Christian Faith*. Minneapolis: Fortress.

Witherington, Ben (2004).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24-27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로마서 1:24-27을 주석적으로 설명하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적으로 그 대책까지 제시한다. 본고는 같은 본문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한 변증서와 같은 인상을 준다. 이들의 주장과 현대적 적용을 먼저 내세우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문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것으로서 죄로 결론짓는다.

### 1. 기여한 점

- 1)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통하여 본문의 의도를 파악했다.
- 2) 본문구조를 통하여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현재도 적용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3) 동성애 지지자들의 해석은 성경의 권위문제에 있다는 점도 잘 지적했다.
- 4) 동성애 지지자들이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라거나 이방인의 그릇된 관습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배경을 창조로 보고, 대상이 보편적 인간이라는 것과 어휘와 표현이 논리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동성애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 5) 전개과정에서 명확하지 않는 한글번역을 잘 지적했다(에피그노시스, 누스, 아르센, 텔뤼스).

### 2. 아쉬운 점

- 1)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가지는 기대와는 달리 동성애자의 돌봄이나 대책까지 제시한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인 대책은 다른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친절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다.
- 3) 바울이 왜 처음으로 레즈비언을 언급했는지를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질문: “근원적인 죄”(The Sin)는 원죄로 이해할 수 있는지?

수정: p. 2, 고린도전서 6:7 - 고린도전서 6:9

p. 7, 상징들이 - 상징들을

p. 15, 창세기 2:27 - 창세기 2:24